



##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노원(NW)’

자원봉사 · 기부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창출하는 가상화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지역화폐’ 공약이 유난히 많이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마디로 지역화폐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 물품과 서비스, 노동 등 자원을 서로 교환할 때 통용되는 대안 화폐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며 이자가 붙지 않는 돈’이다. 지역 내부에서만 유통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외부의 불안정한 금융시장으로부터 지역경제를 지켜 생태 순환적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지역화폐인 ‘노원(NW)’은 노원구청에서 올 2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과연 노원(NW)은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 지역화폐 노원(NW)의 탄생

지난 2월 주부 김 씨는 그동안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로 모은 지역 화폐와 카드로 아들의 학원비를 지불했다. 학원 원장 이 씨는 동네 미용실에서 학원비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해 이발을 했다. 미용실 주인 박 씨는 지역화폐 앱을 사용해 주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를 지불했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일들! 노원구는 GDP에 산정되지 않는 자원 봉사, 기부, 자원순환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지역화폐 ‘노원(NW)’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 나아가 마을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를 개발해 지난 2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노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적립된 ‘지역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다. 지역화폐 노원(NW)은 자원봉사, 기부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지역화폐를 적립하고 적립된 화폐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 지역화폐 노원(NW), 그것이 알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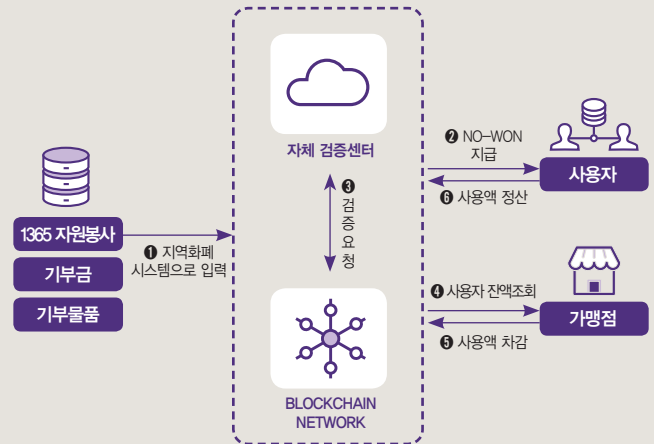
노원구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의 기본 통화 단위는 ‘노원(NW)’이다. 이는 NO-WON의 약자로 1노원(NW)은 1원의 가치를 가지는데, 가치가 변동되는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1원’으로 가치를 규정화시킨 이유는 ‘안정화’ 때문이다.

노원(NW)은 개인 및 단체가 노원구 내에서 자원봉사, 기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창출된다. 사회적 가치별 환가액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되며, 회원 개인당 최대 적립액은 50,000NW으로,

**그림 1** 구청 1층 카페에서 음료 구입 후 지역화폐 노원(NW)으로 결제하는 모습



**그림 2**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노원(NW)의 시스템 체계도



**표 1** 사회적 가치별 환가액

구분	적립기준	적립금액(산출근거)	최대적립액
자원봉사	시간	1시간 × 700NW	50,000NW (유효기간 3년. 단, 기한 내 누구에게나 제공 가능)
기부금품	원	기부액의 10%	
품	시간	1시간 × 700NW	
자원순환 (물품기증)	원	물품가액의 10%	

※ 가맹점의 최대적립액: 무제한(유효기간 3년. 단, 기한 내 누구에게나 제공 가능)

유효기간 3년 내 누구에게나 선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회원이 자원봉사, 기부 등을 통해 30,000NW를 적립하고 있을 경우, 홍길동은 공공 가맹점과 민간 가맹점에서 정한 일정의 사용 기준율에 따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는 QR코드가 장착돼 있는 ‘앱’ 또는 ‘전자카드’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등 상품권으로 발행해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노원구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사업은 공공이나 민간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동네 단위에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기 위해 적립된 지역화폐는 노원구 내에서만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노원구 지역화폐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자원봉사와 기부 등의 사회적 가치를 개개인이 창출하고 확산하는 데 있다. 2017년 말 기준 노원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는 약 17만 명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할 잠재적 회원이 많다는 점인데,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일반, 그린, 골드카드로 발급되던 ‘자원봉사 전자카드’도 블록체인 지역화폐로 통합했다.



표 2 적립방법

자원봉사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문의: 자원봉사센터 | 02-974-3200

기부금품

노원구청,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공하는 금전 또는 물품  
문의: 교육복지재단 | 070-4915-4154

품

돌봄, 배움지도, 수리·제작, 이·미용 등의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가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다른 이웃에게 제공 하는 각종 서비스  
문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978-4281

자원순환  
(물품기증)

녹색장터 되살림에 제공하는 일정한 물품  
문의: 녹색장터되살림 | 02-930-6201

노원 전역의 지역화폐 상용화를 꿈꾸며...

지역화폐 사업은 가능한 최대의 민간 가맹점을 발굴하는 것에 있다. 노원구는 현재 230개소인 가맹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또 본 사업이 활성화 단계로 접어드는 2020년 이후에는 회원 15만 명 이상, 가맹점 1,900개소 이상을 발굴해 노원 전역의 지역화폐 상용화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말 타 지역 사례들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과 이용방법 등 지역화폐의 사업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킬 '지역화폐 길라잡이'를 양성하여 노원구 전역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원구가 추진해온 '마을이 학교다', '행복은 습관' 등 7가지 마을공동체 복원동이 지역화폐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대안화폐인 지역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그림 3 지역화폐 노원(NW) 앱 소개



그림 4 지역화폐 노원(NW)의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 ※ 2018. 5월 현재 가맹점 현황 : 총 230개소(공공 44개소 / 민간 186개소)
- ※ 앱 설치 방법 :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노원 지역화폐' 검색 후 설치
- 예) 사용기준율을 10% 적용하는 음식점에서 식사 후,  
총 결제 금액이 70,000원인 경우  
- 지역화폐 결제금액 : (사용기준율 10% 적용하여) 7,000NW  
- 법정화폐 결제금액 : 63,000원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지역화폐’ 발행 붐

### 블록체인 기술 접목으로 효율적인 지역화폐 운용 기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를 비롯한 10여 개 시·군의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지역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도입에 적극 나선 가운데,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시흥형 지역 화폐 ‘시흥화폐 시루’도 눈길을 끈다. ‘지역에서 돌고 도는 행복 머니’란 슬로건으로 시흥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시흥화폐 시루의 2018년 유통 목표는 약 20억 원이며, 2019년부터는 연간 200억여 원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기존 지역 화폐라 불리던 ‘고향사랑상품권’을 토대로 운영된다. 지류 기반인 지역 상품권은 ‘태환’이 가능해 1:1 현금화가 이뤄진다. 이는 마일리지 형태의 NW보다 직접 자금이 돌아 순환경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흥시는 먼저 시흥화폐를 기반으로 순환경제를 도모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 모바일 간편 결

제 지역 화폐(가칭 시흥페이 시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을 접목한 시루는 2019년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노원이 공동체형에 방점을 두고 진행된 지역 화폐라면, 시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유통의 규모가 더 크고, 노원과 달리 현금화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지역 경제·골목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도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결합하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와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지역 화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종이형 지역 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의 시루가 병행 사용된다면 사용자 및 가맹점의 활용 편의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도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각종 복지 혜택과 청년수당 등을 고양페이를 활용해 지급하면, 시민들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방식으로 스마트폰과 카드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을 제외한 지역 내 자영업체와 중소기업인, 공공·문화시설 등과 가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성남시도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바일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지역화폐로 통용시킬 계획이다. 오는 9월 아동수당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한 뒤 청년 배당, 산후조리, 생활임금, 노인 일자리 비용 등에 사용해 연간 최대 1천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페이’ 발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지역화폐의 신뢰성과 활용성은 물론 자원봉사 등 사회적 활동 활성화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